



벚나무속

Genus *Prunus*

“봄 축제의 대명사”

대한민국 국민이라
면 누구든지 “봄 축
제의 대명사”로 벚

꽃을 어렵지 않게 연상할 것이며, 이를 쉽게 부인
하지 못할 것이다. 봄이면 전국적으로 화사한 벚
꽃길을 이용하여 각종 축제를 벌이곤 하며, 자연
스레 그 벚꽃길을 찾아가서 봄의 싱그러움을 느끼
게 된다. 한편 우리가 흔히 벚꽃놀이에서 보고 즐
기는 벚나무는 주로 왕벚나무인데, 벚나무속 식구
들이 제법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벚나무 위주
의 단순한 식재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
정이다. 이러한 측면에서 봄의 따사로움을 화사하
고 아름답게 수놓는 다양한 벚나무에 대해서 간단
하게 알아보고자 한다.



김종근
한화 제이드가든
수목관리팀장

벚나무속(*Prunus*) 식물은 장미과(Rosaceae)에
속하며 전 세계에 약 430여종이 자라고 있다. 대
체적으로 잎이 지는 큰 나무로 자라지만 간혹 상
록 또는 작은 나무로도 자란다. 잎은 어긋나게 붙
으며, 잎의 가장자리에는 대부분 날카로운 톱니가
발달하지만 간혹 밋밋한 경우도 있다. 꽃은 보통
흰색 또는 분홍색에서 붉은색에 이르는 색상을 띠

다. 꽃차례는 송이째 모여달리거나 꼬리모양처럼 길게 발달하기도 한다. 체리처럼 생긴 크고 작은 열매에는 씨가 한 개씩 발달한다. 주 원산지는 북쪽 온대 기후대 및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우리나라 산야에도 다양한 벚나무류가 저절로 자라고 있다.

번식은 원종일 경우 열매 표면의 과육을 제거한 후 파종하는 것이 대량증식에 유리하며, 품종일 경우 형질유지를 위하여 접목을 하는 것이 좋다. 생육환경은 배수가 잘되고 약간 경사진 적윤지에서 잘 자란다. 낙엽성 벚나무류 상당수가 내한성이 강해서 전국적으로 식재가 가능하지만 상록성 및 일부 낙엽성 벚나무류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내한력(USDA Hardiness Zone)을 확인한 후 식재하는 것이 필요하다.

벚나무 '애컬레이드'

Prunus 'Accolade' (P. sargentii × P. subhirtella)



개화전경



연한 분홍색의 반겹꽃

넓게 퍼지는 수형을 가진 잎이 지는 큰 나무이다. 짙은 녹색의 잎은 10cm까지 자란다. 이른 봄 진분홍색의 꽃눈이 형성되어 차츰 반겹꽃의 연한 분홍색으로 개화하는데 꽃의 지름은 4cm정도이다. 수고 및 수관폭은 각각 8m까지 자란다. 영국왕립원예협회(RHS)의 AGM(Award of Garden Merit) Plant에 선정될 정도로 대중성 및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이다. 추위에는 강해서 영하 28.9도(USDA Zone 5)까지 자란다.

벚나무 '아마노가와'

Prunus 'Amanogawa'



연한 분홍색의 꽃과 잎

위를 향해 자라는 수형을 가진 잎이 지는 큰 나무이다.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모양의 잎은 12cm까지 자란다. 봄철 접힌 잎이 막 퍼질 때 잎은 노란색을 띤 브론즈색갈을 띤다. 가을철 같은 시기에 간혹 붉은색, 노란색 또는 녹색을 동시

에 띠기도 한다. 늦은 봄 접시모양의 연한 분홍색 반겹꽃의 꽃송이가 뽀뽀하게 달리는데 꽃에서 나는 향기가 좋으며, 꽃의 지름은 4cm 정도이다. 수고는 8m, 수관폭은 4m까지 자란다. 영국왕립원예협회(RHS)의 AGM(Award of Garden Merit) Plant에 선정될 정도로 대중성 및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이다. 추위에는 강한 편으로 영하 28.9도(USDA Zone 5)까지 자란다.

양벚나무



전체 수형

가로로 갈라지는 수피

넓게 퍼지는 수형을 가진 잎이 지는 큰 나무이다. 영명인 야생 체리(Wild Cherry)라는 부분에서 열매의 씹힘이와 모양을 대략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. 붉은색 줄무늬의 수피가 특징적이며 달걀모양의 길쭉한 짙은 녹색잎을 가지고 있다. 잎은 15cm까지 자라는데, 어릴 때 브론즈 색깔을 띠다가 가을철에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단풍이 든다. 사발모양으로 봄철 개화하는 흰색 꽃이 아름다운데 우산모양의 꽃차례로 모여 달리며, 지름은 약 3cm까지 자란다. 열매는 심장모양에서 알모양의 붉은색으로 달리는데, 지름은 약 1cm 정도이다. 수고는 20m, 수관폭은 10m까지 자란다. 원산지는

유럽, 남아프리카, 남서부 아시아, 시베리아 서부 지역이다. 영국왕립원예협회(RHS)의 AGM(Award of Garden Merit) Plant에 선정될 정도로 대중성 및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이다. 추위에는 강해서 영하 28.9도(USDA Zone 5)까지 자란다.



개화전경



개화전경

대부분의 특성은 원종(*P. avium*)과 비슷하지만 겹꽃으로 피는 점이 다르며, 가을철에 붉은색으로 단풍이 든다. 수고 및 수관폭은 각각 12m까지 자

란다. 영국왕립원예협회(RHS)의 AGM(Award of Garden Merit) Plant에 선정될 정도로 대중성 및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이다. 추위에는 강해서 영하 28.9도(USDA Zone 5)까지 자란다.

캠파놀라타벳나무 '수페르바'



개화전경



종모양의 진분홍색꽃

넓게 퍼지는 수형을 가진 잎이 지는 큰 나무이다. 영명은 종모양꽃체리(Bell-flowered Cherry),

대만체리(Taiwan Cherry)라고 하는데, 종모양으로 생긴 붉은 꽃과 원산지인 대만을 두고 각각 붙여진 이름이다. 달걀모양의 잎은 약 10cm까지 자란다. 얇은 사발모양의 꽃은 진한 분홍색으로 개화하는데 약 2cm까지 자라며 2~5개의 우산모양 꽃차례에 달린다. 개화시기는 이른 봄에 꽃이 잎보다 먼저 피거나 함께 피기도 한다. 체리를 닮은 붉은색의 열매는 1.5cm까지 길쭉한 모양으로 달린다. 수고 및 수관폭은 각각 8m까지 자란다. 원산지는 중국 남부, 대만, 일본 남부 지역이다. 추위에는 다소 약해서 영하 17.8도(USDA Zone 7)까지 자란다.

흑케라시페라자두



흑색에 가까운 자주색 잎

넓고 길쭉한 원모양 수형을 가진 잎이 지는 큰 나무이다. 영명은 흑체리자두(Black Cherry Plum)이다. 잎은 달걀모양으로 어릴 때는 붉은색이다가 점차 짙은 검정색을 띠는 자주색으로 변한다. 잎의 길이는 2.5cm까지 자라고, 가을철에는 짙은 붉은색으로 단풍이 든다. 줄기도 잎처럼 짙은 검정색을 띤 자주색이다. 사발모양의 꽃은 이른 봄에 엷은 분홍색으로 핀다. 수고는 8~12m, 수관폭은

8m정도까지 자란다. 영국왕립원예협회(RHS)의 AGM(Award of Garden Merit) Plant에 선정될 정도로 대중성 및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이다. 추위에는 아주 강해서 영하 34.4도(USDA Zone 4)까지 자란다.

- 케라시페라자두 '선더클라우드'



전체 수형



연한 분홍색의 꽃과 자주색 잎



진한자주색 열매

넓게 퍼지는 수형을 가진 잎이 지는 큰 나무이다. 잎은 달걀모양 또는 타원형으로 자주색 또는 붉은색을 띠는데 가을철에는 자주색으로 단풍이 든다. 꽃은 분홍색이고 열매는 자주색인데 3~8cm까지 자란다. 수고 및 수관폭은 각각 6m까지 자란다. 추위에는 강해서 영하 28.9도(USDA Zone 5)까지 자란다.

- 참고문헌 -

플러스가든

<http://www.plusgarden.com>

RHS Plant Finder

<http://apps.rhs.org.uk/rhsplantfinder/>

Hillier(1995) The Hillier Gardener's Guide to Trees & Shrubs, David & Charles.

Liberty Hyde Bailey(1976) Hortus Third - A Concise Dictionary of Plants Cultiv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-, Macmillan.

RHS(1996) A-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, DK.

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(1999)

The New Royal Horticultural Society Dictionary of Gardening, Macmillan.

국립수목원(2010)

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, 국립수목원 